여름꽃 심어요 10일 광주시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이 북구청 광장에서 메리골드, 백일홍 등 여름꽃을 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

여름이다, 가자! 전남 바다로

7월 5일부터 모사금 해수욕장 등 57곳 순차 개장
해양스포츠 체험 교실·갯벌 탐구·고기잡기·버스킹
도, 관광객 5% 상향 목표…문화·체험시설 등 마련

전남 해수욕장이 오는 7월 5일부터 순차 개장한다. 전남도와 지자체들은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과 안전대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특히 올해는 전남 해수욕장의 사계절 활성화를 위한 '전남 해수욕장!, 사계절 관광 명소로 도약' 비전을 바탕으로 전년보다 5% 많은 관광객을 목표로 다양한 문화·체험시설을 마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7월 5일부터 전남지역 12개 시·군 54개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 8월 24일까지 피서객을 맞는다. 비교적 일찍 따뜻해지는 남해안에 위치한, 모사금·웅천·낭도 등 여수 해수욕장 9개 해수욕장이 가장 먼저 문을 연다.(7월 5일)

이어 함평 돌머리해수욕장(11일), 장흥 수문(11일)이 개장하며, 보성 율포와 목포 외달도, 완도 신지 명사십리를 비롯해 고흥지역 해수욕장은 12일 나란히 운영에 들어간다.

이밖에도 전남 유명 해수욕장인 해남 송호와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이 7월18일 개장하는 등 7월 25일까지 모든 해수욕장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전남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5% 늘어난 관광객 66만명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 사업비 27억원을 투입, 시설개선과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남 대표 해수욕장인 완도 신지 명사십리에는 맨발 황토길과 세족장을 조성했고, 이밖에 모든 완도군 내 해수욕장에 설치된 파라솔과 그늘막을 점검했다.

고흥군은 모든 해수욕장의 가로등, 공중화장실, 백사장 정비를 마쳤고 진도와 신안군도 음수대와 백사장, 화장실 등 편의장비를 사전 점검하는 등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눈에 띄는 놀이, 편의시설을 마련한 곳도 있다. 해남 송호 해수욕장은 장애인 파라솔 진입로와 수상 및 샤워용 휠체어, 점자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취약계층 편의를 늘렸다.

영광 가마미 해수욕장은 야영장 데크와 몽골텐트, 어린이 물놀이장 정비 및 포토존을 신설했고 장흥 수문 해수욕장은 이동식 매점과 야영 데크·그늘막 평상을 마련했다.

올해는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불러모을 계획이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교실과 갯벌 생물 탐구, 고기잡기 체험을 비롯해 버스킹과 음악회 등의 이벤트도 운영한다.

■전남 해수욕장 개장

개장 날짜	해수욕장
7월 5일	모사금·웅천·낭도 등 여수 9곳
11일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장흥 수문
12일	보성 율포, 목포 외달도, 완도 신지 명사십리, 고흥
18일	해남 송호, 영광 가마미
25일	전체 개장

특히 올해는 해수욕장의 사계절 관광 활성화에도 나서는데, 보성 율포 해수욕장에는 2026년까지 첨단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시설을 갖춘 '해양복합센터'를 건립한다.

여수 웅천 해수욕장 인근에는 2028년까지 해양레저 랜드마크 '거점형 마리나'를 조성하며, 2023년 개관한 해양치유거점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약산 해양치유의숲, 청산 해양치유공원과 연계해 해양치유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해수욕장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도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300여명과 안전장비 4000여대를 운영하며, 수질 및 백사장 관리를 위한 환경 검사를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수욕장이 여름철 단순 해수욕 한계를 넘어 사계절 국민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토록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맛, 힐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니, 올해는 꼭 전남 해수욕장을 방문해달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벌써 온열환자 발생…하루 7명 응급실행

30도를 웃도는 한낮 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 9일 하루 전국에서 온열질환으로 7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누적 환자는 113명이다.

10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감시체계 신고 결과에 따르면 전날 전국 517개 응급실 운영 의료기관에 온열질환자 7명이 들어왔다.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15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는 113명이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전날 환자는 서울·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강원에서 1명씩 발생했다.

올해 누적 온열질환자의 73.5%는 남자다.

연령대별로는 60대와 80대 이상이 각각 15.9%로 가장 많았고, 30대·40대 15.0%, 50대 13.3% 등의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 환자는 31.0%였다.

환자는 주로 실외 작업장과 길가에서(각각 21.2%) 발생했고, 논밭(17.7%) 등에서도 나왔다.

실내 작업장(5.3%)이나 집(3.5%) 등 실내에서도 전체 환자의 11.5%가 발생했다.

환자 직업은 단순 노무 종사자(14.2%), 농림어업숙련종사자(9.7%), 주부(8.8%)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3~4시에 가장 많은 환자(17.7%)가 나왔다. 오전 11시~낮 12시(15.9%), 오후 4~5시(14.2%)에도 적잖은 수의 환자가 발생했다.

일사병으로도 불리는 열탈진 환자가 48.7%로 가장 많았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는 열실신(23.0%) 환자와 열사병(21.2%) 환자도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온열질환은 샤워를 자주 하고, 헐렁하고 밝은색의 가벼운 옷을 입는 등 생활 속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다. 물을 자주 마시고,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시원한 곳에 머물러야 한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폭염 시에는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12일까지 한낮 무더위

30도 안팎…일교차 커 건강 유의를

광주·전남에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오는 12일까지 낮 기온이 광주와 전남내륙을 중심으로 30도 내외로 올라 덥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11일 아침최저기온은 14~19도, 낮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했으며, 12일 아침최저기온은 16~19도, 낮최고기온은 24~30도일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13일 새벽 0시부터는 광주·전남 전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비는 14일 오후 6시께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휴식 공간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37개월 대신 18개월…의대생 현역 입대 가속화

4월 647명 '역대 최대치'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긴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가운데 올해 4월 한 달간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한 의대생이 64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10일 병무청에 정보 공개를 청구해 확보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공보의협에 따르면 4월에 입대한 의대생 647명 중 현역은 589명, 사회복무요원은 58명이다. 지난 3월 현역병으로 입대한 의대생 412명 대비 57% 증가한 것으로,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다.

공보의협은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가속화가 뚜렷하다"며 "올해 한 해에만 의대생 약 5700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그간 공보의협은 의대생들이 37개월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 대신 18개월 현역병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공보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성폭력 피해 지원' 센터 이용 2명 중 1명 '미성년자'

지난해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은 자들 가운데 과반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펴낸 '해바라기센터 2024년 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의 피해로 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한 이들은 모두 2만 3021명이다.

지난해 이용자 가운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1만1690명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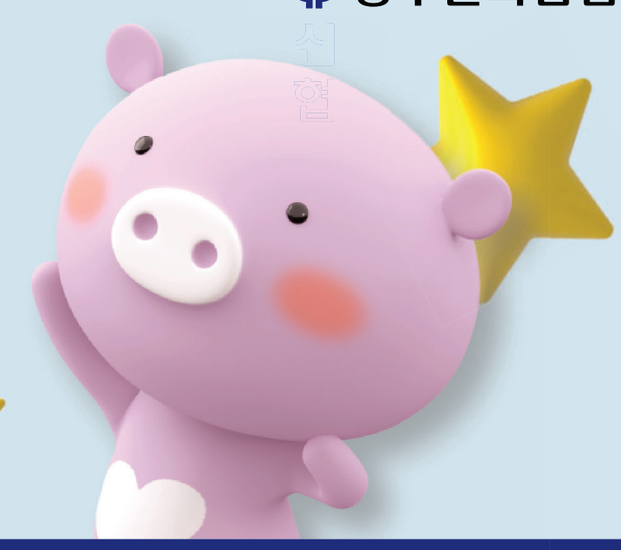
성별 비중을 보면 여성이 81.3%, 남성은 17.3%였다. 여성은 19~59세가 36.8%로 가장 많았고, 남성은 13세 미만이 71.0%로 가장 많았다.

피해 유형을 보면 성폭력이 7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가정폭력(17.3%), 성매매(0.7%), 교제폭력(0.7%), 스토킹(0.5%)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 복지장학재단 운영 |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